

제 64 호

연중 제 6 주일

1974. 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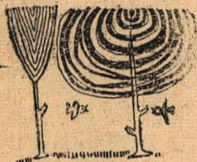
#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함 승 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 【강 료】

## 가난한 마음에

이 병 호신부



불 일이 있어서 모처럼 고속 버스나 특급 열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할 때가 있다. 폭신한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창밖으로 멀고 가까운 경치들이 반대쪽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머릿 속의 상념들은 그만 끊어나 빠른 속도로 윤택하게 달려간다. 내가 탄 차가 빨리 달릴수록, 나는 마치 현실 세계에서 잠깐 떠나, 전혀 다른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듯한 환상마저 느낀다. 그런데 때때로 나의 이 부드럽고 윤택한 환상과 비상(飛翔)의 꿈으로부터 여지없이 깨어나 떨어지는 수가 있다.

심하게 등이 굽은 할아버지나 한참 몇부릴 나이의 젊은 여인이, 샅이나 팬이 자루를 우악스럽게 거머쥐고 흙을 파고있는 장면이 눈에 확 들어오는 순간이다. 그때 만일 내가 별로 긴할 것도 없는 일로 해서 여행을 하고 있었다거나, 등에 등산용 배낭이라도 메고 있었다면, 내 마음은 때때로 심한 가책에 짓눌린다. 몇가지 변명을 순간적으로 끌어 내지만, 계륜직한 뒷맛을 씻을 수는 없다. 막연하게나마 나는 인간 가족중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태도를 보여 주었음을 느끼는 것이다. 어떤 수단으로든지 나는 이를 기워잡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문득 한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느끼기에 이것은 어느쪽이나 하면 삶에 꼭 필요할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는 부면에 돈을 쓰고 있는 것이 라고 느꼈을 때에는, 그돈의 10분의 1이나 20분의 1이라도 따로 떼어놓았다가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로 한다면, 우리의 양심은 한결 가벼워질 것 같다.

중동전쟁, 석유의 무기화, 각종 원자재의 절대량 부족 그 결과 하늘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등,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갑자기, 자기가 살고있는 세상의 가난에 이처럼 심각하게 눈뚫던 때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너무나 영똥한 해답이지만, 열은 열로 다스린다는 말 그대로, 우리는 이 가난을 가난으로써 밖에 구할 길이 없는것 같다.

남을 도와주라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여유있게 써지는 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놓자는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묘하게도 가난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고 오히려 가슴 뿌듯이 하느님의 나라가 거기 와 있음을 느낄 수 있으리라. 그때 비로서 우리는 "가난한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 나병환자를 위한 주일 하루동안, 서울 명동에서 모아진 성금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는 소식은, 물가고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역설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 같다.

<정읍 천주교회 주임신부>

### \*이주일의 미사\*

#### (1)개회식

□**입당송** 주여, 내 몸을 막아주는 큰 바위, 나를 살리는 굳은 성채되소서. 내 바위, 내 성채는 당신이시니, 당신의 이름으로 날 이끌어 데려가 주소서.

#### (2)말씀의전례

□**제1독서** (예레 17: 5-8, 경향잡지 P. 51)

사람을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창계송** ◎ 야훼님께 그 믿음을 두는 사람 복되도다 마치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인 양 계절 때에 열매내고 잎이 아니 시들어 그 하는 일마다 잘 되어 가도다. ◎

□**제2독서** (고린트전서 15: 12, 16-20, 성서 P. 399)

그리스도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은 헛되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반을 상이 하늘에 가득하다. 알렐루야.

□**복음** (루카 6: 17, 20-26, 성서 P. 139)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고 부자들에게는 화가 미치리라.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주여...

2. 세계를 이렇게 경제적인 파국으로 물고 온 특정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소서. ◎

3. 주여, 이토록 삶에 지치다보면 교회살림은 잇기가 쉽습니다. 본당도 내 집임을 항상 깨닫게 하소서. ◎

4. 주여 비오니 우리가 바치는 이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여 주소서. 우리 주... ◎아멘.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술**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그를 보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 (4) 폐회식

### \* 순정이 산책 \*



거북이 이겨라! 거북이 이겨라!

### 주일 헌금의 유래

(63 호의 계속)



박진량 신부

그런 중에도 교회는 언제나 신자들에게 마음의 예물은 미사때에 바치도록 가르쳐 왔다.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 교회에전 생활의 개혁과 아울러 초세기에 신자들이 미사 중에 그들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건」을 실제로 봉헌하던 풍습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속마음을 겉으로, 또 보이는 물건으로 표시함으로써 봉헌하는 정신이 점점 더 많아 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시대의 변천과 위생적인 이유와 간편한 접등을 참작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신자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화폐를 상징적으로 바침으로써 나타내도록 하였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해서 봉헌되는 금전이 교회 운영에도 보탬이 됨에 따라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게 되어 전교지방의 모든 본당에서는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미사 중에 예물을 봉헌하며 행렬지어 나가는 것은 펴으나 깊은 뜻이 있는 것이며 초세기 부터 있었던 교회의 아름다운 풍습 중에 하나인 것이다.

미사성제의 뜻이 본래,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각자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냉정한 마음을 외적으로 드러낼 때 그 냉정한 마음이 더욱 분명해지며, 또 증진되기 때문이다. 한 마더로 냉정 마음과 외적 표시 사이에는 긴밀한 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해둘 것이 하나 있다. 신자들이 미사중에 봉헌하는 빵과 포도주 혹은 금전이 그대로 하느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에 봉헌된 것이며 교회는 사제와 부제와 평신도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몸이 되어 집단적이며, 성제급적 행위를 통하여, 신자들이 봉헌한 예물을 하느님께 가장 흡족한 예물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꾸어서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인 그 본당 공동체는 지난 한 주일 동안에 각자의 노력과 수고의 결실을 그리스도와 함께 성신을 통하여 성부께 바쳐드리는 것이다.

<가톨릭 센타 관장>

### 참살떡 사러 - !



강상윤(아오스당)

아카도 작얏은 외기러기 울음일게다, 슬프디 슬픈 애소가 밤하늘에 무겁게 내려 앉는걸 보니, 밤이면 외기러기 처럼 목관을 들고 젊음과 희생을 판다. 따스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시간에 참살떡 몇개를 팔아 공소를 짓겠다고 목이 아프게 외치는 공소 형제들, 정말 고마운 마음 들이다.

며칠전 심원공소를 방문했다. 왜 우리 형제들이 참살떡을 팔아야 하는가를 알았다. 아니, 참살떡처럼 진중한 희생정신을 배웠다고 생각하는게 옳은것 같다.

마을에서 외마로 떨어진 초가공소. 옛부터 처녀공소(?)라 칭하던 곳이다. 아가씨 교우가 많고, 현재 서있는 공소도 손수 흙벽돌을 찍어 지었던 공소란다. 몇 미터 떨어져 있는 마을속의 예배당은 그대로 종각이 그럴듯 하게 서있는데, 너무 우리 공소는 마을에서 소외된 느낌이다.

매지(埤地)는 공소에서 공동 투자하여 면소제지 증양에 구입은 했으니 해동(解凍)하면 곧 공사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적은 액수라도 마련하고파 시작한 것이 참살떡 장사란다. 한푼이라도 모아 아버지(?)을 모실수 있는 새집과 새식구를 맞이하고픈 예쁜 마음들이다.

개미처럼 일해서 몇들어진 「강당」을 지어 보겠다는 그들의 파란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한테, 너무나 가난한 우리 본당 실정이니 애만 타고 마음만 아플 뿐이다.

한포의 시멘트나 한알의 모래라도 협조해 줄 독지가는 안게시는지? 언 손을 호호 불며 차가운 겨울밤에 참살떡을 파는 내형제를 보고 우린 외면(?)만 할것인가?

참살떡 사러 - ! 하는 가냘프고 희생어린 젊음이 여기 있는데... 형제의 뜨거운 정에 언 손이 따스하게 녹을 겨러가 아쉽다.

고창 천주 교회

#### ☆ 편집실에서 알리

- 천주교회 심원 공소 회장 김 중 관 (560-36) 고창군 심원면 연화리.
- 따뜻한 격려의 정성 부탁 드립니다.

#### ○신앙인의 상식

궁금하게 여기시던 사연들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낼곳 : 520 전주시 서노송동 가톨릭센타 내)

박진량 신부

### 여학생만을 위한 기숙사

#### 여성의 몸가짐을 닦을 수 있는 시설

공동생활 뜻을 가진 자로서 지방에서 온 여학생 (高·大生) 6개월 이상 생활관 생활에 뜻이 있는 학생을 받습니다. 여학생관은 질서있고 규칙적인 생활속에서 정서적이고 가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 ●보조시설

- ※ 아늑한 도서실
- ※ 안락한 휴게실
- ※ 탁구대와 오르간
- ※ 스티מצ치와 침대

전주역전  
전주시

가톨릭  
서송동 601

여학생관  
전화 ㉠ 2955

양 지 쪽



# 무슨 말씀을 하셨나?

김 마리아 수녀

옛 선비들은 하루만 책을 안읽어도 입안에 가시가 생긴다 (一日不讀書 口中生荆) 고 하였다. 옛 선비의 시대도 그렇거니와, 오늘날 독서도 현대생활의 필수 조건이요, 한 개인의 인간 생활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있다.

학문이나 문필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 이거니와 농, 공, 상, 기획, 경영, 기술자에 이르기까지 독서를 게을리해서는 자기 발전을 이룩할 수 없는 것이 현대라는 의미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때 더욱 그러한 느낌이 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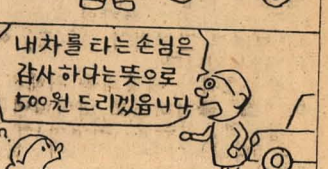
한스 카로씨는 「인생은 만남」이라고 했다. 인생은 주어인 자기 생활 영역에서 실존의 하느님과 또 사랑의 사람과 부단한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이 반복되는 인생 여정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철학자 메카르트는 「독서한다는 것은 과거의 뛰어난 인물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였다. 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출판물로서 그 옛날 예루사렘 성전의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바로 성서라는 것을 먼저 알고 읽으므로써 그 스승이 가르친 말씀을 실천 할 수 있는 바른 신자가 되어야 하겠다.

천주교 신자라는 하나의 명칭뿐이지 성서 한권 읽지 않고 믿음 자체를 획질수설, 꾸짖는 신자의 태도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성서를 보지않고 더구나 알뜰한 연구없이 설교하는 사제는 집에 찾아온 귀한 손님에게 식은밥 한덩이 무성의하게 대접하는 식이요, 성서를 보지않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잔치집에 부조없이 가는 식이다. 참된 신앙생활, 주 나는 누구를 믿고 있다는 사도 바오로의 확신 (디모테오후서 1의 12)과 같이 기본 생활과 그리고 인생의 좋은 바탕을 이룩하려면, 그리고 사상적 폭을 가지려면 좋은 책속에서 찾을 도리밖에 없다. 또한 바른 인생관과 성실한 자세를 확립하고 하늘 나라의 믿음, 바람, 사랑 그리고 세상의 일과 사물을 똑바로, 보는 눈을 기르는데 필요한 매개체가 바로 좋은 책들이다.

신자로서 내가 먼저 교회 출판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아 계몽하고 성서를 비롯한 모든 출판물의 보다 열심한 독서를 촉구하는 마음 가득하다.

(성바오로 여자수도회)

## 요심이 (31) 김병오



###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화 ③3498)

- 매주 월, 화, 목요일 7시 반...일본어 교실 (강사: 김용환 선생)
- ※ 초보부터 시작, 호평(好評)을 받으며 전주 시내의 인기를 독점하고 있음.
- “ 목요일 8시..... “목요일 밤에” (남녀 젊은이들의 대화)
-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 외국 문화 교실 English Conversation.....월~금요일 7시

현대인의 필수 조건은 양서를 골라서 읽는 것이다. (T.2~7398)

※성 바오로 서원

### \* 이 주간의 성경 \*

- 18(월) 독서(야고버 1:1-11, 성서 P.520) 복음(마르코 8:11-13, 성서 P.93)
- 19(화) 독서(야고버 1:12-18, 성서 P.520) 복음(마르코 8:14-21, 성서 P.94)
- 20(수) 독서(야고버 1:19-27, 성서 P.521) 복음(마르코 8:22-26, 성서 P.94)
- 21(목) 독서(야고버 2:1-9, 성서 P.522) 복음(마르코 8:27-33, 성서 P.95)
- 22(금) 사도 성 베드로의 주교좌 축일 독서(베드로전 5:1-4, 성서 P.535) 복음(마태오 16:13-19, 성서 P.39)
- 23(토) 성 팔리카르보 주교 순교기념 (1,26) 독서(묵시록 2:8-11, 성서 P.560) 복음(요한 15:18-21, 성서 P.246)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판토호의 직자

렉스 V 래토프



(임한진 애견)

문의처: 전화 ③7692(진북동 어은골)

### \* 교형 여러분의 집 \*

## 스타 사진관

장남 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② 6094

###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울태(베드로)

●육교연 중앙시장동 (전화 ②4577)

- 1. 출판물 보급 주일 (다음주일, 특별 헌금 있음)  
급변하는 현대에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현대인으로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악서(惡書)가 양서(良書)를 목졸라 죽이는 오늘, 교회 출판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니다. 교회 출판물에 관심을 가집시다.
- 2. 재의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 2월 27일)  
사순절이 가까워 졌습니다. 한 알의 밀이 썩어야 새 생명을 낳고, 진통의 괴로움이 새 생명을 주는 아 엄숙한 진리를 당신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맞으시겠습니까?
- 3. 말씀의 광장 (18일(월)) 오후 7시반, 가톨릭 센터)  
주제: 학생과 교회  
연사: 문정현 신부 (교구 교육분과 지도신부, 해성 중·교 종교감)  
조성호 선생 (사목협의회 회장, 해성 중 교감)  
김재덕 주교 (교구 학생 연합회 총재)
- 4. J. O. C. 전주 교구 남자 회장에 김 병주씨 피선 (10일자)  
남자 회장: 김 병주 (안토니오), 서기: 황 진숙 (안젤라)
- 5. 사제 인사이동 (2월 14일자)  
이상호 신부(부안에서 신태인으로), 김정원 신부(순천에서 수류로), 안용기 신부(신태인에서 부안으로)

[소]

[식]

(중양)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안복진  
②3874 보좌 신부 박창식  
사도 회장 이복석

-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2. 신부님 가정방문 (오후 7시-10시까지)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전 가족과 면담 하겠음.  
25(월)-27(수): 교사, 중앙, 정원동  
28(목)-3, 2(토): 중노, 태평 2가 (이후 계속)
- 3. 푸르실리스타 토론회 (23(토) 오후 8시, 사제관)  
※ 초대 손님: 광주 대성 학생 (전지: 안수 목사)  
푸르실리스타 형제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 4. 부녀부 간부회의 (22(금) 어머니 미사후)
- 5. 감사합니다  
염종호씨가 애령회를 위해서 5천원 헌금하셨습니다.
- 6. "조" 불원하신분 감사합니다.  
강재희, 이은님, 최성진(각 1천원), 엄경숙, 정만덕 (각 5백원) 이름 밝히시지 않고 36,500원, 3천원, 5백원, 계 44,000원
- 7. 자모회 창립 총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지난 주일 봉헌금 41,566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철  
사도 회장 조해형

# 1. 노송동 성당 신축 기공식(3월19일)

교우 여러분께서는!  
하느님의 공전을 신축하는데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합니다.

- 2. 협조해 주신분  
이 아타나시오(홍재) 5만원, 이베드로(대환) 3천원  
김 막달레나(정순) 300원, 누계 591,250원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 1. 신용 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2. L. M 간부회의 (공소포함-오늘 공식 미사 후)  
참석자-단장, 부단장, 회계, 서기
- 3. 주일학교 교리 시작 (오늘 오후 2시부터)  
※ 아동 미사-오후 4시
- 4. 젊은이들의 단합대회 (19일(화))  
오전 9시반에 성당으로 모여서 모악산으로 갑니다.  
회비 300원(교통비 및 점심값)을 준비하시고 나오세요.
- 5. 앵크 마련에 협조하신 분 (목표액 70,000원)  
지난 주 완납-이범상(1만원), 조준석(3천원), 서마리아(1천원), 박동규(7백원), 김은식, 송영규, 이기호, 이준민, 임옥순, 임관순, 천금선(각 5백원)  
신입-김상철(2천원), 김동년(1천원), 교봉주, 김수곤, 김중원, 유정순, 정연희(각 5백원)  
※ 부족액 10,8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5,286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교무금 완납요망 (본당 재정고갈)
- 3. 제대에 십자가 기증한 은인 (가액 85,000원)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3. 주일금 배가운동  
지난 한주일 동안 받은 많은 은혜와 앞으로 필요할 은혜를 주시라고, 또 보속과 속죄, 희생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봉헌합시다.
- 4. 성지 가지 (작년의 성지를 사무실에 반납하시오)
- 5. L. M 피미시움 회합 (전동: 1시30분)
- 6. 무사히 마친 피정 (8(금): 복자 부녀회)  
감사 오 신부님과 참석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미사 참례자(10시): 349명 (7시) 114명  
계 463명  
지난주 성금 3말 9되 (누계 252말 9되)  
지난 주일 봉헌금 13,56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 1. 상관 피정 (12(화), 강사 박진량 신부)  
① 상관 사도회 임원과 각 공소 부녀회장, 기타 70여명이 참석  
② 박 부제님의 특별강좌  
③ 성과있는 성년 행사를 무사히 끝냈음을 다같이 천주님께 감사합시다.
- 2. 가정 방문 일정  
19(화)-7, 8반(오후 2시),  
20(수)-9, 10반(오후 2시)
- 3. 교리 교사 회합 (지도: 부제님)  
현 교리교사와 뜻있는 남녀 청년들의 참석요망.  
☆ 축 결혼 (2월20일(수) 오전 11시)  
신랑 김성진(오섭), 신부 강양희(베로니카)  
□지난 주일 봉헌금 11,766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 1.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 미사후, 저녁미사후)
- 2. 성심 유치원 원아모집 (2월25일까지)
- 3. L. M 피미시움 월례회 (오후 1시30분)
- 4. 가정 방문 일정  
20(수)-서완산동(이현재, 고태석 구역)  
21(목)-서완산동(조은식 구역)  
가정 방문이 누락된 가정은 사무실에 신고 바람.  
□애령회 특별 헌금 6,005원  
지난 주일 봉헌금 35,210원, 감사합니다.